

나가사키 평화선언

73년 전 오늘, 8월 9일 오전 11시 2분. 한여름의 하늘에 터진 한 발의 원자 폭탄으로 인해 나가사키의 거리는 끔찍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도 동물도 풀도 나무도,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불타고 폐허가 된 거리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시신이 널려 있었고, 강에는 물을 찾다가 탈진한 수많은 시체가 떴다 가라앉았다 하며 하구까지 흘러갔습니다. 15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도 몸과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어 지금도 방사선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폭은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존엄을 가차 없이 앗아가는 잔혹한 무기입니다.

1946년 국제연합은 창설되자마자 핵무기 등 대량 파괴 무기의 근절을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호로 정했습니다. 같은 해에 공포된 일본 헌법은 평화주의를 확고한 축으로 삼았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가 겪은 원폭의 참화와 그 원인인 전쟁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한 결의를 나타내면서 그 실현을 미래에 맡겼던 것입니다.

지난해 이 결의를 실현하고자 끊임없이 호소해 왔던 나라들과 원폭 피해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의 노력이 열매를 맺어, 국제연합에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이 채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약의 채택에 크게 기여한 핵무기 폐기 국제운동(ICAN)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지구상의 많은 사람이 핵무기가 없는 세상이 실현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73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에는 14,450발의 핵탄두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핵무기는 필요하다고 태연히 주장하며 핵무기를 사용하여 군사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다시 강해지고 있음을 피폭지 주민들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보유국과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의 지도자에게 호소합니다. 국제연합총회 결의 제1호에서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한 결의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50년 전에 핵 확산 금지 조약(NPT)에서 나눈 ‘핵 군축에 성실히 임한다.’는 세계와의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인류가 또다시 원폭 피해자를 낳는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핵무기에 의존하지 않는 안전 보장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여러분,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이 하루빨리 발효되도록 자국 정부와 국회에 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요구하십시오.

일본 정부는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에 대해 지금 300곳 이상의 지방 의회가 조약의 서명과 비준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을 지지하고 세계를 비핵화로 이끄는 도의적 책임을 다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지금 한반도에서는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과 첫 북미 정상 회담을 기점으로 끈질긴 외교를 통해 다시는 뒷걸음질하지 않는 비핵화를 실현할 것을 피폭지 주민들은 크게 기대하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 한반도와 일본 전체를 비핵화하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 지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나가사키의 핵무기 폐기 운동을 오랫동안 이끌어 온 두 명의 피폭자가 지난해 연달아 돌아가셨습니다. 그중 한 분인 쓰치야마 히데오씨는 핵무기에 의존하는 국가의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핵무기를 소유하고 또 앞으로 보유하려는 것은 아무런 자랑도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끄럽고 반인륜적인 범죄의 가담자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 다른 피폭자, 다니구치 스미테루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핵무기와 인류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통은 이제 우리만으로 충분합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단 한 발도 핵무기를 남겨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은 전쟁이나 피폭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것을 몹시 걱정했습니다. 두 사람이 없는 지금, ‘전쟁하지 않는다’는 일본 헌법에 담긴 뜻을 다시금 다음 세대에게 계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로운 세계를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있습니다.

피폭지를 방문해 핵무기의 공포와 역사를 아는 것이 그중 하나입니다. 자기 동네의 전쟁 경험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경험은 공유하지 못해도 평화에 대한 생각은 공유할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에서 시작된 핵무기 폐기 만 명 서명운동은 고등학생들의 제안으로 생겨났습니다. 젊은 세대의 발상과 행동력은 새로운 활동을 낳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이학을 접어 피폭 지역에 지속해서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문화와 풍습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 교류함으로써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것도 평화로 연결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나 스포츠를 통해서 평화에 대한 생각을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사회야말로 평화를 낳는 기반입니다.

‘전쟁 문화’가 아닌 ‘평화 문화’를 시민사회의 힘으로 전 세계에 퍼트려 나갑시다.

동일본 대지진의 원자력 발전 사고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도 방사선의 영향은 후쿠시마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가사키는 복구를 위해 애쓰고 있는 후쿠시마 여러분을 계속해서 응원하겠습니다.

피폭자의 평균 연령은 82 세를 넘었습니다. 여전히 원폭 후유증에 시달리는 피폭자를 한층 더 보호해줄 것과 지금도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은 ‘피폭 체험자’를 하루빨리 구제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원자 폭탄으로 돌아가신 분들께 진심으로 추모의 뜻을 바치며, 우리 나가사키 시민은 핵무기 없는 세계와 항구적인 평화 실현을 위해 전 세계의 여러분과 함께 힘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2018년 8월 9일

나가사키 시장 다우에 도미히사(田上 富久)